



노조 이제 새롭게 바꾸자

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

보도자료

배 포 일: 2025.7.30.(수)

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/ 054-805-3981~4, 805-3989(fax) / www.gbe.or.kr

보도자료 요약문 / 2025.7.30.

회계사고 근절 지침, 경북교육청 공무원 83.9% “실효성 없다”

-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, 지방공무원 1,305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
- 91% “업무 증가”, 1인 행정실은 “삶의 질 저하” 호소

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(위원장 심동섭)은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된 ‘회계사고 근절 지침’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. 조사에는 행정직 공무원 1,305명이 참여했다.

지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83.9%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, 업무량이 “늘었다”는 응답도 91.3%에 달했다. 특히 1인 행정실은 70%가 부정 평가를 보이며 “혼자서 처리 불가”, “삶의 질 저하” 등 응답이 다수 나왔다.

심 위원장은 이에 따라 △교육행정기관 우선 시행 △금액기준 설정(100만원 이상) △소모품 제외 △소규모 학교 별도 기준 △에듀파인 기능 개선 등을 제안하며, 경북교육청의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.

"회계사고 근절 지침, 현장 공무원 83.9% 부정적 평가"

경북교육청 지방공무원 1,305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

- 업무량 91% 증가, 1인 행정실 "삶의 질 저하" 수준
- 교무실-행정실 갈등 심화로 업무 혼란
- 교육행정기관 우선 시행·금액기준 도입·소모품 제외 등 현실적 개선 요구

□ 조사 개요

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(위원장 심동섭)은 30일, 지난 7월 8일 시행된 「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 방지 대책 지침」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

이번 조사는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재직자(4,428명)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, 총 1,305명이 응답했다(응답률 29.5%).

□ 주요 조사 결과

▲ 정책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 압도적

회계사고 근절 지침에 대해 "도움이 되지 않을 것"(38.77%)과 "실익이 없을 것"(45.13%)을 합쳐 83.9%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. 반면 "도움이 된다"는 응답은 11.49%에 불과했다.

▲ 업무량 증가 91%, "상당히·많이 증가" 63%

지침 시행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를 묻는 질문에 91.34%가 업무가 늘었다고 응답했다. 특히 "상당히 늘어났다"(32.34%)와 "많이 늘어났다"(30.57%)를 합쳐 62.91%가 심각한 업무 과중을 호소했다.

▲ 1인 행정실 "나홀로 실장 업무 폭탄"

자유의견을 학교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, 1인 행정실 근무자의 약 70%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, "삶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"라는 절박한 호소가 이어졌다. 2인 근무자

역시 70% 이상이 부정 평가를 보여, 소규모 학교의 업무 부담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▲ 본청·교육지원청 vs 학교 현장 극명한 인식차

근무지별 분석에서 본청·직속기관(20.9%)과 교육지원청(20.8%)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, 학교 현장에서는 8~12%만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2배 이상의 인식 격차를 보였다.

□ 현장의 목소리

▲ 교직원 간 갈등 심화

자유의견 분석 결과(646명 응답), 가장 심각한 문제로 교무실과 행정실 간 갈등이 지적되었다. "교감의 결재 거부 사례 발생", "교무실과 행정실 업무 갈등 심각", "교사를 범죄자 취급한다는 민원 제기" 등 학교 내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.

▲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

현장에서는 지침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.

"빈대도 못 잡고 초가삼간 태우는 지침"

"1%도 안 되는 회계사고 때문에 99%가 피해받는 것"

▲ 현실성 부족 지적

소액 물품까지 검수해야 하는 현실성 부족도 집중 비판받았다.

"포스트잇 1묶음까지 검수"

"2~3만원 물품까지 모두 작업"

"연간 3,000여 건 처리로 업무 마비"

□ 개선 요구사항

▲ 교육행정기관 우선 시행

교육행정기관부터 우선 시행해 지침의 문제점과 회계사고 예방 효과를 검증한 후 학교로 확대하는 단계적 실행 방안

▲ 금액 기준 설정 (최다 요구)

100만원 이상 적용: 35.2%

50만원 이상 적용: 28.7%

30만원 이상 적용: 21.4%

▲ 소규모 학교 특별 배려

1인 행정실: 200만원 이상 적용

감사 시 업무 부담 고려한 경미사항 현지조치

▲ 절차 간소화

법인카드 확인서 또는 에듀파인 검수 중 선택

소액 소모품(사무용품, 간식비 등) 제외

온라인 구매 시 별도 처리 방안

□ 노조 입장

심 위원장은 "83.9%의 현장 공무원이 반대한다는 것은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신호"라며 "회계사고 근절이라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,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적용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만 낼 뿐"이라고 지적했다.

특히 "1인 행정실의 '삶의 질 저하'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"이라며, "교육행정기관 우선 시행, 금액 기준 도입, 소액 소모품 제외, 소규모 학교 특별 배려 등 현실적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□ 경북교육청에 대한 제언

노조는 경북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.

▲ 즉시 개선 사항

교육행정기관 우선 시행(제도 검증 후 학교로 확대)

금액 기준 도입(100만원 이상)

1인 행정실 별도 기준 설정(200만원 이상)

소액 소모품 제외 기준 마련

이중 업무(법인카드 확인서+검수) 해소

▲ 중장기 과제

학교장·교감 대상 회계 교육으로 공감대 형성

1~2인 행정실 감사 시 지침 완화 적용

현장과 소통하는 정책 수립 체계 구축

에듀파인 시스템 기능 개선(검수 목록 자동 알림, 중복 방지 등)

심 위원장은 "현장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지침으로 변경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회계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"이라고 덧붙였다.

[첨부]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 방지 대책 지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
보고서 전문은 노조 홈페이지(www.gbe.or.kr)에서 열람 가능